

2023년 노사협의회 합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년 노사협의회 개최
상위직급 확대와 보직관리 규정 개정 등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합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최승덕, 이하 ‘강교노’)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금) 2023년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공무원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12개 조항에 대해 노사 상생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작성하였다.

지난 11월 1일(수) 노사협의회 안건 송부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안건 요구의 취지와 현실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상호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고 노사협의회 당일에는 보직관리 규정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열띤 논쟁과 토론을 통해 실질적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5급 5명, 6급 30명, 7급 50명 확대)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TF 구성·운영 및 개정된 규정을 2024. 7. 1.자로 시행(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유예 후 2025. 7. 1.자 적용) ▲자율연수비를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용범위 확대(직무 외 소양까지 확대) ▲교육행정 선진화 및 업무 경감 TF 구성·운영 ▲시설관리직 배치기준 및 업무개선 TF 구성·운영 ▲현업업무종사자 단기간 대체인력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과정(1시간) 개설·운영 ▲교육도서관 사서직 총원 등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2년 12월에 노동조합과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직관리 규정이 졸속으로 개정된 바 있다. 강교노는 해당 규정이 2024. 1. 1.자에 전면 적용되면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에 대한 우려를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현실은 ‘악법도 법’이었다. 이에, 강교노는 해당 악법(규정)을 개정하는 TF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강교노 최승덕 위원장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의견을 고려하여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니 추후 의견 수렴 시 지방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고, “우리의 권익은 한 명 한 명의 의지를 모아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획득할 수 있으니 노동조합을 통해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